

장흥군 '친환경 무산김' 종자주권 확보 총력

무산김 품종 개발 및 보호 등록 홍초1호, 마지막 재배심사 앞뒤 "품종 개발·보호 등록 힘들 것"

장흥군이 친환경 '무산김'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종 개발과 품종 보호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무산김 종자 중 하나인 '홍초1호'가 마지막 재배심사를 거쳐 이달 내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앞서 장흥군은 2008년부터 유·무기산을 쓰지 않는 전통 김양식방법으로, 전국 최초의 친환경 김 브랜드인 '장흥 무산김'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매년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해역 및 무산김 양식방법에 적합한 특화 김 품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흥군은 친환경 무산김 양식방법에 적합한 종자를 개발하고자 2009년 장흥 해역에서 무산김 양식에 적합한 종자를

선발해 7년의 육종 과정을 거쳐서 최종 3개 품종을 2016년 '품종보호등록' 출원을 신청했다.

이후 3년 간의 까다로운 품종심사를 거쳐 2020년(홍초3호), 2021년(홍초2호) 각 2종의 품종이 등록이 완료되었다.

현재 '홍초1호'는 마지막 재배심사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품종보호등록은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에 따라서 진행되며, 보호 및 등록을 위한 요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등록이 완료된 품종은 해당 기관에 20년 동안 권리를 갖게 된다.

이같은 시·군 단위 최초 해조류의 품종 보호 등록으로 알려졌다. 품종보호 등록으로 장흥군은 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육종 원천 소재 확보 뿐 아니라, 김 종자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은 2018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무산김 종자 중 하나인 '홍초1호'가 마지막 재배심사를 거쳐 이달 내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장흥군 제공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을 설치했다.

2021년 배양실, 연구실을 갖추고 문을 연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은 홍초 종자를 비롯한 우량종자 보전·배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친환경적인 무산김

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응하는 우량 김 종자 연구가 필요하다"며 "품종보호 등록을 통해 종자 주권을 확보하고 '장흥 무산김'의 대외적 인지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전남 사랑애(愛)서포터즈 '1위' 보성군, 사업비 2억원 확보



보성군은 지난 12일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 사랑애(愛)서포터즈 모집 캠페인' 결과 1위를 차지해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보성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6개월간 2만6210명의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보성군은 67만명이 다녀간 '2023 보성 세계차엑스포' 기간 중 운영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및 전남 사랑애(愛)서포터즈 모집 부스를 성과로 분석했다.

관광객에게 가입을 홍보하는 포스터 제작뿐 아니라 가입 연계 이벤트, 모바일 공유, 메시지(알림톡 등)를 통한 혜택 및 관광 소식 알림 등을 통해 서포터즈를 모집한 것도 한몫했다.

각종 대외 행사장을 방문해 직원·가족, 출향향우 등에게 서포터즈 신청을 홍보해 서포터즈 활동 동참을 유도했으며 가입 활성화 및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민원실과 금융기관 등 가입신청서를 비치해 민원인과 방문객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온라인 이용 홍보도 활발했다. 보성군 공무원 SNS 홍보단과 군민 SNS 서포터즈단이 가입 목적과 할인 혜택을 매체에 게시·공유하며 단기간에 전남 사랑애(愛)서포터즈 가입 붐을 일으켰다.

김은지 기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광양시-영산강청

광양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안착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매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제도 안내, 행동 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 참여 독려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내 29개 식품점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4일부터 확대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점검과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낮지형) 국민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 홍보를 통해 사업주와 소비자의 일회용품 감량을 촉진했다.

'일회용품 줄여가게'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자원순환실플랫폼(<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 또는 한국환경공단 상담실(1600-1687)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지역 내 매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제도 안내, 행동 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 참여 독려 등을 진행했다. 광양시 제공

고흥군, 재해위험 노후 저수지 개보수 나섰다

총 사업비 170억원 투입 노후 저수지 9개소 정비

고흥군이 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후저수지 9개소에 170억원을 투입해 정비에 나선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선정된 저수지는 축조된 지 5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 노후가 심해 제방 누수 우려가 있고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개

보수가 시급했다. 군은 위험도가 높은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와 전남도로부터 지난 1월 사업 대상지구로 확정됐다. 덕분에 '재해위험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70억원(국비 25억원·도비 100억원·군비 45억원)을 투입해 사업 대상지인 △도화면 이목동제, 지동제, 사동제 △과역면 내백제, 가산제 △남양면 남양제,

하담제 △대서면 금당2제, 중남제 등 9개소에 제방 보강, 사석 정비, 제방 차수그라우팅, 취수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용역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했으며 이달 공사계약과 함께 본격 사업을 시행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시설 개선에 나선다.

사업이 완료되면 130ha 농경지에 용수 공급과 함께 제방 붕괴위험 등이 해소돼 주민들의 영농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지 기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고흥군, 올해 1098명

고흥군이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한 결과 올해 1098명(어업 701명·농업 39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배정받은 471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인원이라고 13일 밝혔다.

고흥군에는 현재 상반기 배정인원 311명 중 사증 발급 및 의료검사를 통과한 200여명이 농·어가에 배치된 상황이다. 추가 근로자 선발과 고용주 소속 점검 등 도입 준비가 완료되는 7월부터 하반기 계절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해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에 배치된다.

앞서 고흥군은 지난 3월 필리핀 내 3개 지자체와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전체 5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및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17일 여름맞이 대개장

호남 최대 물놀이 시설인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17일 운영에 들어간다.

디오션 워터파크는 오는 17일 MBC 트로트클라스 공개녹화를 시작으로 24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DJ와 워터캐논, 물총이 어우러지는 여름축제 '워터쇼'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트로트클라스' 특집 '얼리버드 썸머 페스티벌 6월의 바캉스 클래스'는 '트롯요정' 요요미, '자기야 박주희', '모세' 춘

길, '쌍둥이 개가수' 상호상민 등이 출연한다.

각 3시간씩 진행되는 1·2부 녹화 사이에 EDM DJ 파티가 열리며 워터파크 이용권과 순천 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24일부터 진행되는 '워터쇼'는 DJ 디지, DJ 캐스퍼, DJ 앤유 등 DJ 공연과 워터캐논 물 대포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울여름 물놀이 '인싸템'으로 통하는 각종 물총과 고글 반입이 가능해지면서 여름 축제를 방불케 할 예정이다.

'워터쇼'는 8월15까지 매주 토·일 14시30분부터 90분간 워터파크 실외 파도풀에서 진행되며 물총은 현장 대여도 가능하다.

1.5톤 물 대포와 함께 캐논볼, 다이렉트 슬라이드 등 실내용 어트랙션은 워터파크 즐거움을 위해 안전점검을 마쳤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061-689-0880)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물놀이 안전사고 '0' 총력 광양시, 안전요원 배치

광양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물놀이 대책을 수립해 백운산 4대 계곡 및 배알도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물놀이 인명 구조장비 구축과 안내표지판 설치현황, 안전 위험요소 등에 대해 안전관리 사전점검을 시행했다.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 6월-8월 상황보고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해 시민과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월-8월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안전관리요원 44명을 배치하고 순찰, 계도 활동은 물론 비상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활동 임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에 따라 △유관기관 협조 등 안전관리 체계구축 △인명 구조함 등 안전시설 정비 확충 △비상근무 및 상황관리 △안전수칙 대국민 홍보도 실시한다.

문병주 광양시 안전총괄과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음주 후 수영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